



# 제주·인천·경남, K리그 꼴찌 탈출 안갯속

제주, 24일 16시 제주월드컵경기장서 수원과 홈경기  
인천-경남, 30일 K리그1 최종전 맞대결이 '최대 변수'

프로축구 1부 잔류를 위한 생존경쟁이 안갯속이다. 내년 K리그1(1부리그)에서 다시 뛸 수 있는 11위 팀과 다음 시즌 K리그2(2부리그)로 곧바로 강등되는 12위 팀까지 승점은 단 3점 차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최종전까지 생존과 강등의 주인공을 꼽기 어렵다.

하나원큐 K리그1 2019 파이널B 37라운드를 앞두고 인천 유나이티드(승점 30·31득점), 경남FC(승점 29·41득점), 제주 유나이티드(승점 27·42득점)가 10~12위에 나란히 랭크돼 있다. 인천과 제주의 승점 차이는 단 3점이다.

K리그1 12위 팀은 내년 K리그2로 자동 강등되는 가운데 11위 팀은 K리그2 플레이오프(PO) 승자와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 1부 잔류를 타진한다. 10위 팀은 내년에도 K리그1에서 뛸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 경남, 제주는 24일 37라운드 경기에서 각각 상주 상무(7위), 성남FC(9위), 수원 삼성(8위)과 나란히 맞붙는다. 인천과 제주는 홈에서, 경남은 원정 경기다.

37라운드에서 인천과 경남이 나란히 이기고, 제주만 패하면 제주의 2부리그 강등이 확정된다.

하지만 반대로 제주만 이기고 인천, 경남이 모두 패하면 순위는 또다

시 요동친다. 이러면 다툼점에서 가장 앞서는 제주가 10위로 올라서고 인천, 경남은 한 계단씩 내려앉는다.

여기에 인천만 이기고, 다른 두 팀이 모두 지면 인천은 10위를 확정해 내년 1부리그 잔류에 성공하게 된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보니 세 팀 모두 최하위로 떨어질 수 있고, 10위로 올라설 수도 있다.

결국 '잔류 경쟁'에 나선 세 팀은 남은 2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노린 뒤 잔류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

특히 인천과 경남이 공교롭게도 오는 30일 최종전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된 건 생존 경쟁에 최대 변수다.

이런 상황에서 팬들의 시선이 '생존왕' 인천에 쏠리는 건 당연지사다. 인천은 2013년 K리그 무대에 승강제가 도입된 이후 2014시즌부터 지난해까지 4시즌 연속 2부리그 강

등의 위기를 맞았지만, 시즌 막판 '불꽃 투혼'으로 1부리그에 남아 생존왕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이번 시즌 역시 부진하다 30~35라운드까지 2승 4무의 무패행진을 앞세워 10위까지 올라서며 강등권에서 벗어났지만 36라운드에서 제주에 패하면서 1부 잔류 확정의 기회를 날렸다.

아쉬움의 감정이 사라지기도 전에 유상철 감독의 회장압 투병 사실까지 공개되면서 이번 37라운드에 나서는 인천 선수들의 승리 의지는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1부 잔류 경쟁에 나서는 상대 팀들도 상주, 성남, 수원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잔류가 확정된 상황에서 남은 2경기 동안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자칫 특정 팀을 밀어준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 있어서다. 연합뉴스

## '은퇴' 이세돌, 인공지능과 대결 추진

국산 인공지능 '한돌' 상대

현역 은퇴를 선언한 이세돌(사진) 9단이 인공지능(AI)과 마지막 대국에 나설 전망이다.

21일 바둑계와 방송가에 따르면, 이세돌 9단과 국산 바둑 인공지능(AI)인 '한돌'의 이벤트 대국이 추진되고 있다.

이세돌은 지난 19일 한국기원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24년 4개월간의 현역 프로기사 생활을 마감했다.

이세돌은 12세이던 1995년 7월 입단한 후 18차례 세계대회 우승, 32차례 국내대회 우승 등 모두 50번의 우승컵을 들어 올린 한국의 간판 바둑기사였다.

2016년에는 구글 딥마인드의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파고와 '세기의 대국'을 펼쳐 1승 4패로 패했다.

이 1승은 인류가 알파고를 상대로 거둔 유일한 승리로 남아있다. 연합뉴스



NHN이 자체 개발한 한돌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신진서·박정환·김지석·이동훈·신민준 9단 등 국내 정상급 바둑 기사와 대국을 벌여 모두 승리했다. 이세돌과 한돌의 대국은 12월 18일 시작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대국 일정과 대국료 등은 협의 중이다. 연합뉴스

## '백업 포수 트레이드'... 스토틀리그 후끈

한화 백업 지성준 '롯데행'  
kt, 윤석민 주고 허도환 영입

야구에서 포수는 '특수 포지션'이다. 과거에는 "활용도는 낮아도, 타타에 내어주긴 부담스럽다"며 1군 경험에 있는 포수 트레이드를 꺼리는 구단도 있었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포수 트레이드가 활발하게 이뤄진다.

1군에서 꽤 많은 경험을 쌓았지만 당장은 활용 폭이 크지 않는 2, 3번 포수를 내주고, 팀에 필요한 자원을 얻는 게 이익이라는 판단에서다.

21일 오전에 발표한 두 건의 트레이드도 '포수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롯데 자이언츠는 베테랑 투수 장시환(32)과 젊은 포수 김현우(19)를 한화 이글스에 내주고 상대 '2번 포수' 지성준(25)과 내야수 김주현(26)을 받았다. 이번 스토틀리그 주요 화두였던 '롯데 포수 영입'에 마침표를 찍은 트레이드다.

kt wiz는 내야수 윤석민(34)을 SK 와이번스로 보내고 포수 허도환(35)을 영입했다.

전날(20일) 2차 드래프트에서 한화는 포수 이해창(32)을 뽑았다.

한화는 이해창을 뽑은 덕에 지성준을 트레이드로 활용할 수 있었고, kt는 포수 트레이드에 속도를 냈다.

지성준은 2019년 한화에서 최재훈의 백업 포수 역할을 했다. 최재훈이 1022%이닝을 소화했고, 지성준은 팀에서 두 번째로 많은 186%이닝 동안 마스크를 썼다. 허도환도 올해 SK에서 이재원(1041이닝) 다음으로 많은 242%이닝을 소화했다.

주전 포수 교체 혹은 백업 포수 영입이 절실했던 팀은 지성준과 허도환 등 상대 2·3번 포수 영입에 공을 들였고, 가장 포수가 급했던 롯데가 지성준을 잡았다. kt도 경험 많은 허도환 영입에 성공했다.

최근 포수 트레이드는 성공 사례가 많다. 2015년 kt는 롯데로부터 포수 장성우를 받았다. 장성우는 올해 kt에서 가장 많은 911%이닝을 소화했다.

2017년에는 두산 베어스에서 양의지(현 NC 다이노스), 박세혁 등에 밀린 최재훈이 한화로 이적해 현재 한화의 주전 포수로 활약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이지영이 키움 히어로즈로 옮겨갔고 올시즌 주전 포수로서 FA 잔류계약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새 감독으로 부임한 조제 모리뉴 감독(왼쪽)과 토트넘의 공격수 손흥민(오른쪽).



연합뉴스

## 토트넘의 희망 모리뉴... 손흥민과 케미는

토트넘 감독 데뷔전인 23일 웨스트햄전서 첫 호흡  
"손흥민은 정말 위협적이다" 극찬... 과거 발언 눈길

카타르 월드컵 예선과 브라질 친선경기를 치른 태극전사들이 소속팀으로 복귀해 리그 경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번 주말에는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에게 특히 더 관심이 쏠린다.

토트넘은 23일 오후 9시 30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런던 스타디움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2019-2020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3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웨스트햄전은 토트넘이 시즌 중

사령탑 교체라는 강수를 둔 뒤 처음 치르는 경기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4위를 차지했던 토트넘은 이번 시즌 극도의 부진 속에 12라운드까지 단 3승(5무 4패)밖에 거두지 못해 20개 팀 중 14위까지 추락했다.

그러자 2014-2015시즌부터 팀을 이끈 마우시리오 포체티노 감독을 20일 경질하고 바로 조제 모리뉴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모리뉴는 지난해 12월 맨유 사령탑에서 물러난 지 11개월 만에 프리미어리그 팀 감독으로 복귀하게 됐다.

모리뉴 신임 토트넘 감독은 부임하자마자 바로 선수단을 만나 첫 훈련을 이끌며 팀 재정비에 나섰다. 한국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도 토트넘에 복귀해 모리뉴 감독과의 첫 훈련에 참여했다.

모리뉴 감독은 포르투(포르투갈), 첼시(잉글랜드), 인터 밀란(이탈리아),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맨유 등 유럽 리그 명문 클럽을 지휘하며 무려 25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명장이다.

토트넘은 '스페셜 원'으로 불리는 모리뉴 감독이 팀의 반등을 이끌어 줄 것 기대하고, 한국 팬들은 토트넘의 에이스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손흥민이 '우승 제조기' 모리뉴 감독과는 어떤 공감을 보여줄지에 기대가 크다.

강한 수비를 바탕으로 빠른 역습 등 실리를 추구하는 모리뉴 감독은 손흥민을 중용할 가능성이 크다.

모리뉴 감독은 토트넘 부임 이전부터 손흥민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를 꺾을 때 모리뉴 감독은 러시아 국영방송 RT에 "손흥민은 정말 위협적이다. 빠른 역습을 허용하는 팀을 상대할 때 손흥민보다 나은 선수는 없다"고 극찬했다. 연합뉴스

**제주홍익여행사**  
**746-2200**  
www.jejuhongik.co.kr

★일반여행업등록 제1016호★ 2009 문화관광부 제주마이스투어 & 인센티브제주여행 상품 인증/2억원 보증보험 가입업체/예약계좌: 제주은행 21-13-003418 예금주: 제주홍익여행사 '고객감동 해외여행서비스'

# 못말리는 제주직향전세기

꽃보다 청춘! 제주직향 3박 5일

라오스 비엔티안/방비엔

12/11(수) 단하루

★전신맛사지 2시간  
★버라이어티 탐방동굴  
★카약 래프팅 ★블루라운

관광패키지 999,000원~

골프 54홀 1,290,000원~

눈이 부시는 동양의 라스베이거스, 마카오

제주직향 마카오 전세기

1만의 취향별로 마카오를 즐기세요

1. 주해/마카오 4일 799,000원 (월, 수 출발) ★이온전도함 ★배내시인자유

2. 마카오/주해/심천 5일 899,000원 (금, 일 출발) ★이온전도함 ★배내시인자유

3. 마카오/단하산 5일 950,000원 (금, 일 출발)

하노이/하롱베이/닌빈(짱안)

3박 5일 제주직향으로 떠나는 환상의 여행

제주직향 선착순 12/28(토) 2/19(수)

899,000원

★특식 3회 (파라다이스뷔페, 씨푸드, 삼겹살 무제한)  
★전신맛사지 1시간 (팁별도), 베트남 전통논모자 증정, 스트라카 포함

공/통/사/항

왕복항공료, 1급호텔(2인1실), 일정상의 식사제공, 관광지입장료, 전용차량료, 인술자 부분별 동행, 1억원여행자보험,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기금, 공항세, 최소 15명이상 출발 모집마감-선착순 ★불포함: 가이드 & 기사 팀/개인비용, 부가세 불포함